

※ 문의 : 동향분석팀 손영기 팀장(02-6050-3442), 김정진 대리(02-6050-3444)

車·유화·섬유 구름 조금, 조선·정유 흐림 <商議 산업기상도>

-  정보통신  車·유화·섬유·철강·기계·건설  조선·정유 -

-  정보통신, 올해도 LTE 스마트폰 판매 유지 및 반도체價 상승 기대
-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혜 '건설', 전방산업 회복 '기계', 동남아시장 성장세 '섬유'
-  중국인니 정제공장 확충 '정유', 해운업 업황회복 지연 '조선'

올해 주요업종의 산업기상도는 정보통신 '맑음', 자동차·석유화학·섬유 '구름 조금', 조선·정유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10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2014년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종은 '맑음', 자동차·기계·석유화학·섬유·철강·건설 등 6개 업종은 '구름조금', 정유·조선 등 2개 업종은 '흐림'으로 예보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정보통신'은 비슷했으며,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의 회복이 예상되는 '기계', 기저효과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신증설 설비의 가동률 향상으로 생산증가가 기대되는 '철강'이 각각 1단계씩,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이 2단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작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조선'은 해운업 업황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1단계 하락했다.

<표> 2014년 산업기상도

업종	정보통신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의류	철강	기계	건설	조선	정유
2014 전 망									
2013 실 적									

 : 맑음,  : 구름조금,  : 흐림,  : 비

‘정보통신’ 지난 해 이어 올해에도 맑음

올해 정보통신업종은 지난해에 이어 맑음으로 분석됐다. 모바일 스마트기기 확산 속에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SSD,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와 중국, 태국 등 신흥국 중심으로 LTE 스마트폰의 판매 유지,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 지속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작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디스플레이도 월드컵, 동계올림픽 등 대형스포츠 이벤트 영향으로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석유화학·섬유’ 지난해와 비슷 ... ‘철강·기계·건설’ 침체 국면에서 회복세

자동차업종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름조금’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신차출시 및 2,000cc 초과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있었지만 현대·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주말특근 미 실시 영향으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다. 올해는 세계 자동차 시장규모 증가, 노후차량의 교체수요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 임금 관련 노동이슈, 엔저 등 악재도 여전하다.

석유화학업종도 ‘구름조금’으로 예보됐다. 작년에는 톨루엔, PX(파라자일렌) 등 기초·중간원료 설비증설로 생산이 증가하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성장 등이 호재로 작용했는데 올해에도 이런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합성원료의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 중동 및 동남아 저가 제품과의 경쟁심화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섬유업종도 지난해 실적과 올해 전망 모두 ‘구름조금’으로 예보됐다. 작년에는 면방업체의 설비 증설과 면사 생산량 증가, 베트남 등 ASEAN 국가의 원부자재 수요에 따른 수출 증가세, 한-터키 FTA 발효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올해 역시 동남아 시장 성장세, 신성장동력인 탄소섬유의 생산증가와 함께 이런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철강업종은 작년 ‘흐림’에서 올해 ‘구름조금’로 나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작년 글로벌 공급과잉과 전력수급상의 문제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한 해를 보냈으나 올해는 전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들의 신증설 설비 가동을 향상에 따른 생산증가 등이 기대된다. 그러나 신흥국의 과잉설비로 인한 경쟁악화로 당분간 기업들의 실적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계업종의 경우 지난해는 하반기부터 나타난 중국시장의 누적재고 해소, ASEAN 지역의 투자 지속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엔저, 중동지역의 수요 급감 영향 등으로 ‘흐림’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의 회복세 속에 장비류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계업종 경기도 ‘구름조금’으로 전망됐다.

건설업종도 전년 대비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4/1, 8/28 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관련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비’였다. 그러나 올해는 기저효과와 수도권 중심으로 기대되는 회복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수도권 수혜 가능성 등 영향으로 건설업종 경기가 개선돼 ‘구름조금’으로 전망됐다.



‘정유’ 다소부진 지속 ... ‘조선’ 다소 악화

정유업종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흐림’으로 전망됐다.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인도네시아가 정제공장을 확충하면서 석유자급률이 증가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나프타 수요 감소로 정제마진이 악화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조선업종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올해 전망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큰 폭의 수주량 증가와 가격지수 회복 속에 주요 기업들이 목표 대비 초과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전방산업인 해운업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해양플랜트 부문은 발주 감소와 함께 맞춤형 건조에 따른 납기 지연의 이중고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산업계는 노동현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통상임금 기준의 조속한 입법화 △근로시간 단축의 점진적 축소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한-중 FTA 협상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의류)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섬유) 등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전수봉 상무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세계경제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미국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불안 가능성, 엔저 장기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며 “기업은 인재양성과 기업시스템 재구축 등 근원적 경쟁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고, 정부는 선제적인 위기대응을 통한 경제안정화, 제조업 경영환경 개선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산업기상도’는 업종별 지난해 실적과 올해 전망을 집계하고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이를 기상도로 표현한 것이다. 🌩